

전통문화 · 현대적 감성 더한 '전주단오' 성료

시, 덕진공원 전역 활용 문화 · 여가 · 휴식의 장으로 거듭나... 풍년기원제 · 공연 ·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

전주 도심 속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에서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더해진 '2026 전주단오' 행사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2026 전주단오' 행사가 덕진공원 전역을 활용한 문화 · 여가 · 휴식의 장으로 거듭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이해 열린 '2026 전주단오'는 행사 첫날 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와 기잡놀이로 막을 열었다. 이어 제88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특히 단오의 백미인 경연과 전통놀이 프로그램은 축제 현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다.

덕진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과 관광

객의 관심 속에 치러진 △전주단오 장사씨름대회 △달랑달랑 종자웃놀이 대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과 시민들의 함성이 어우러지며 단오날의 활기찬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특히 올해 전주단오 행사는 전통 세시풍속의 전승 가치를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새롭게 단장한 덕진공원의 잔디광장을 피크닉존으로 활용하고, 배달 피업존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감성 나들이와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했다.

또한 단오 고유의 상징인 창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덕진공원 창포마당에서는 단오맞이 전통 풍습인 '창포물 머리감기'를 비롯해, 시원한 여름을 미리 맞이하는

'창포 워터터널', '단오운동회' 등이 진행돼 남녀노소 모두가 시원하게 축제를 즐겼다.

이와 함께 체험마당에서는 △소원등 소원지 적기 △공기게임 체험 △한공 체험 등이 펼쳐졌으며,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한마당에서는 △종자웃놀이 △단오부적체험 △장명부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여기에 올해 전주단오 행사에서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먹거리도 선보였다. 축제 대표 음식인 진지국수와 파전 등을 파는 '한상마당' 부터, 전통 디저트와 추억의 간식 등을 맛볼 수 있는 '한입마당', 쉼리스와 닭꼬치 등 다양한 푸드트럭을 즐길 수 있는 '별마당' 까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돋웠다. 이들 부스 및 푸드트럭에서는 다화용기를 사용하여 친

환경 축제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이외에도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 · 국악 · 클래식 · 밴드 · 조선팔공연 △비보이 △대사습놀이 △플로라 놀이관, 사지탈 공연 △검무 △공물 및 무용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들이 축제 기간 내 이어져 단오의 낮과 밤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전주단오는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성과 휴식을 더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줬다"면서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즐겨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전주단오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한옥마을 플로깅 '구슬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아동 · 대학생 참여 환경정화 활동 펼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지난 20일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에서 아동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뜻깊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기린·비전·아이들 천국 등 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60여명과 전주권대학 봉사동아리 청년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환경보호를 위한 온정의 손길을 모았다.

플로깅 활동은 효과적인 정화를 위해 2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1코스에는 기린지역아동센터 팀이, 2코스에는 비전·아이들천국 지역아동센터 팀이 투입돼 전북 천리길

중 하나인 전주한옥마을 둘레길 구석 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학생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대학생 봉사단은 아동들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멘토 역할과 단순한 정화 활동을 넘어 세대간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또, 정화 활동 후에는 인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험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민의 날' 전주 빛낸 '전주시민대상 · 모범시민상' 시상

단오날 '전주시민의 날' 로 지정한 취지 살려 '단오행사' 연계 추진

전주시 대표 절기행사인 단오날이자 '제88회 전주시민의 날'을 맞아 전주를 빛낸 시민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덕진공원 단오행사 무대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8회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시상식'을 가졌다.

시는 민족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의 전통과 의미를 계승하고,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단오날을 '전주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26 단오행사'와 연계해 기념식을 열었다.

전주단오 행사인 풍년기원제가 끝난 후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전주시민대상(7명) △모범시민상(3명) 등

전주시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다.

영광의 2026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대상 문정혜 씨(88세, 여) △교육학술대상 신효균 씨(70세, 남) △문화예술대상 왕기석 씨(62세, 남) △산업·기술대상 정인준 씨(52세, 남) △사회봉사대상 송병용 씨(64세, 남) △체육대상 최형원 씨(63세, 남) △북지대상 서양열 씨(53세, 남)이다.

또한 △바용배 씨(70세, 남) △정순우 씨(70세, 남) △송요섭 씨(80세, 남) 등 3명이 모범시민상을 받았다.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모범시민상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각각 주어졌다. 이 가운데 시민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



전주시는 지난 19일 덕진공원 단오행사 무대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8회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시상식'을 가졌다.

원 · 체육시설 ·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도 감면 등 다양한 예우가 주어진다.

시상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들의 수상을 축하하는 전북태권도협회의 태권도 공연이 이어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88회 전주시

민의 날' 행사에서 많은 시민과 함께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수상자들을 함께 축하하게 돼 기쁘다"면서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을 받으신 모든 수상자와 가족들께 깊은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무료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전주시는 시민들이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국제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 대상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제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액 사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며, 마을

세무사 연락처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주시청 세정과(063-281-2281)와 완산구청 세무과(063-220-5301), 덕진구청 세무과(063-270-649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 해소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에 힘을 기울인다.

/권희성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수방장비 사전 점검 및 운용능력 강화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 실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및 순찰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수중펌프 20대와 양수기 12대 등 풍수해 대응 장비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 숙달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협조체계를 강화



해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73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기상특보 발효 시 기동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풍수해 대응 장비 운용을 운영하고 기상 상황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감염관리위원회' 열고 체계 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지난 19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구급대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위원회는 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감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서장을 위원장으로 소방행정과장, 대응예방과장, 구급대원, 구급담당자와 자원위원인 전북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김소은 교수가 참석해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간 감염대책 수립 · 시행 △구급대 감염관리 교육 · 훈련 △구급장비 및 구급차 소독 · 멸균 관리 △119감염관리실 운영 △의료폐기물 관리 등 구급대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대책을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의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용성 있는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구급대원의 건강 보호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구급서비스의 안전성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